

광주, 부강한 도시로 ‘우뚛’...전남,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

강기정 시장, AI-미래차-반도체 삼각축 구상 제조·의료·뷰티 등 9대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인공지능(AI)-미래차-반도체를 삼각축으로 미래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강한 광주’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제지도를 통한 광주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강기정 시장

그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는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고, 부강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역대 최대인 3조9497억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은 그 신호탄이자, 광주의 목소리에 이재명 정부가 응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신경제지도를 통해 광주의 미래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반도체 삼각축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그 성과가 기존 주력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국가NPU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6000억원 AX실증밸리 사업, 2조5000억원 규모의 ‘AI모빌리티신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비 617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200대’가 도심 곳곳을 누비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대한민국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지’ 조성도 병행해 광주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아와 함께 AI·미래차·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성과가 제조·의료·뷰티 등 9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기업의 신규 투자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인제 양성 강화 의지도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그동안 AI 사관학교와 GCC 사관학교를 비롯해 GIST-삼성의 반도체계약학과, 전남대 등 4개 대학의 AI 융합대학 등을 지원해 튼튼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만들어 왔다”며 “광주가 잘해오던 인재 양성 사다리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전폭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 전략에 맞춰 더 큰 광주·전남을 준비해 가겠다”며 “광주와 전남은 교통 산업 에너지 환경을 함께 설계하며 궁극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1980년 5월과 2024년 12월 그리고 한강을 통해 민주주의로 첫 번째 등장을 했다. 이제 광주가 지켜온 민주 가치를 성장의 기회로 이어갈 부강한 광주라는 두 번째 등장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유치 실현 재생에너지 확충...“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다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로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까지 적극

유치해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공공 주도로 확충하고,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5배 이상 향상, 신안·진도·여수·고흥 등 해상풍력 확대, 해남·순라시도에 들어설 오픈 AI·SK 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관 산업 집적화 등을 핵심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내년을 ‘전남 과학기술 진흥 원년’으로 선포해 선도적인 AI·에너지 산업에 초격차 기술까지 확보해 대한민국 첨단산업



김영록 지사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전통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제조업과 농수산업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AI·탈탄소·고부가 기술을 활용하는 ‘AI 대전환 초혁신 전남’을 구축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김 지사는 남해안권 초광역 관광벨트 조성, ‘K-노벨 문학센터’ 건립 등도 약속했다. 지역 숙원인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전남 국립 통합대학교(목포대·순천대)

의대와 500병상 이상 규모 부속병원을 동·서부에 각각 설립해 지역 연결적 의료체계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울타리를 넘어 호남의 미래를 결정지를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출범할 광주·전남 특별 광역연합은 40년 행정 경계를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될 호남을 향한 징검다리 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정신 전문 수록, 지방분권 천명 등 원포인트 개헌이나 재정·권한 인센티브 지원 등 확실한 기반이 마련되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길로 즉시 나아가야 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전라선 고속철도·경전선 KTX-이음 전철화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육성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화와 목포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육성 등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제는 전남의 울타리를 넘어 호남의 미래를 함께 그려야 할 때”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원대한 꿈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해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AI·에너지 수도, 전라남도 대부흥’의 길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목포대-순천대 통합 투표 부결

통합 요건 미충족...국립 전남의대 차질 예상

전남 최대 숙원 가운데 하나인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통합이 구성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23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양 대학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교원, 직원·조교, 학생 등 3개 직역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통합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순천대 학생 투표에서 찬성의견이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목포대에서는 3개 직역별 투표에서 2개 이상이 찬성 50% 이상일 경우 통과로 보지만, 순천대에서는 세 직역 모두 절반 이상을 조건으로 설정했다.

교수와 직원 그룹에서는 각각 50% 이상 투표, 50%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학생

그룹에서는 투표율과 무관하게 찬성의견이 절반 이상이면 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순천대에서 찬성 판단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지역 사회에서는 순천대가 설정한 ‘전 직역 과반 찬성’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통합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날 투표 결과로 이번 투표 결과로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통합 대학을 전제로 추진되던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정부 국정 과제와 전남도의 계획 역시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 제14회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시상식 성료 23일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5 제14회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순배 광남일보 사장과 고광원 광주시행정부시장,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윤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혁신팀장, 김우현 광주지방조달청장 등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상식에서 허승업 ㈜삼우산업 대표와 김상용 ㈜남우기술공사 대표가 종합대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는 등 모두 18개 업체가 수상했다. ▶관련기사·화보 10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성탄절 휴일로 25일자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왔다!

광주 최초 초대형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착공

- ✓ 쇼핑·문화·여가가 결합된 광주의 매력 확산
- ✓ 지역 방문수요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 ✓ 청년, 지역민을 위한 대규모 직간접 일자리 창출
- ✓ 도시이용인구 확대로 도심 전역 소비 활력 회복

더현대광주 : 복합쇼핑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랜드마크, 미래형 복합쇼핑몰

광주신세계백화점 : 문화예술

백화점+문화예술 기능 확장 프리미엄 아트&컬처 플랫폼

어등산스타필드 : 레저관광

남부권 체류형 글로벌 관광단지

